

포장분야의 정부지원 정책

최 남 호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 산업디자인과 행정사무관

포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지류, 합성수지, 목재, 금속, 유리병, 기타 재료로 施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편 포장의 정의는 각종 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통상산업부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과 한국공업규격의 정의이다.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는 '유통과정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 또는 기술을 말하며, 이를 위한 재료 및 용기의 개발, 표준화, 자동화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한국공업규격에는 '물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서 그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용기 등을 시행하는 기술 또는 시행한 상태, 이것을 단위포장, 내부포장 및 외부포장의 3종류로 대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는 유통과정중 상품의 보호기능을 강조하고 특히 최근 국가경제에서 물류의 중요성의 부각에 따라 유통측면에서 있어 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다.

그러나 포장은 반드시 유통이라는 측면에

서만 강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포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상품이 성립되는 기능성 포장도 포장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장은 경제가 확대될수록 그 기능이 확대되어 최근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포장은 단순한 짐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포장은 무엇보다도 판매촉진의 핵심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즉 상품이 소비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이 포장이므로 현대에 있어 포장은 '상품의 얼굴'로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상품의 유통 등 물류합리화의 핵심요소로서의 중요성이다. 특히 최근 경제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이 커짐에 따라 생산의 중점인 동시에 물류의 시발점으로서 포장도 물류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로 제조업과 디자인 및 서비스 등 복합적인 기술의 응용산업으로서 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물론 포장의 중요성이라기 보다 포장산업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포장, 아름다운 포

장이 되기 위해서는 포장의 재료, 제조·가공기계, 설계·디자인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응용하는 산업으로서 포장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넷째로 환경 및 폐기물문제와 관련하여 포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산업체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의 핵심요소로 포장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문제에 있어서는 포장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포장산업의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다. 포장재 생산의 경우 9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시장규모가 4조 1242억원으로 GNP의 18%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 증가추세로 추산해 보면 최근에는 총 6조원을 상회하는 GNP의 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 포장산업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가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수출유망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포장산업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문제점도 많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로, 국내 포장업체는 일본이나 유럽 등 외국의 포장산업 모방과 선진기술 도입으로 생산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환경친화성 포장 등 신제품 개발부문은 전문기술인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부족으로 자체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필름류 등 가공업체의 시설이 대부분 낙후되었고, 포장기계의 경우 정밀부품 등 핵심부품의 수

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포장산업은 복합적인 기술이 연계되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도 포장산업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어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 포장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은 동국전문대, 신성전문대 등 2개 전문대학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각각 93년도, 95년도에 신설되어 충분한 교수진과 실습장비의 확보가 미비한 상황이다. 포장인력 재교육도 현재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의 포장관리사교육, (사)물류관리협회의 물류관리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라는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포장산업의 현황·문제점과 함께 최근 포장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가 동 산업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94~95년중 우리 경제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기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불황기를 겪어온 포장산업도 94년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수급불균형 상황이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지구 환경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 및 바젤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포장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등의 실시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정포장 및 환경친화적인 포장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변화

이다.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 무역 규모의 확대 및 고유농산물의 개발과 차별화를 위한 포장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국내산업의 제반 보호조치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제도, 각종 국산설비 보호조치 및 무역금융의 폐지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특히 내수시장의 고기능 제품 선호에 따라 고급품시장에서 외제품에 의한 국산품 시장잠식도 예상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급기술이 필요한 포장재료나 용기, 포장관련 기기 및 핵심부품의 수입, 포장용역회사의 국내 진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포장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포장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진흥시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포장산업진흥의 기본 정책방향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포장산업의 기술집약화 및 자동화·표준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자금 및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94년 이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의 확대를 계획 중이다. 현재 '산업기술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충전·포장기기·경량도공지 등 20개 내외의 포장산업 기술분야가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도출되어 검증작업중이다.

시설자금의 경우도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자동화 설비자금 등 여러 자금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포장분야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받는 자금은 전무

하여 지원의 연계체제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 97년부터 산업기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 사업자금에 포장분야를 신설하여 각종 시설개체자금 및 포장시험설비자금의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포장표준화의 경우 96년도부터 신설지원되고 있다. 일관팔레트화의 정착을 위해 표준팔레트(T-11형) 도입시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표준팔레트 사용화물의 운송·보관·하역시 우대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외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의 촉진, 기업의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자금, 유통근대화자금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로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포장상품의 개발촉진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디자인·포장기술지도사업, 우수포장상품선정제도 등의 지원시책을 펴고 있다.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은 95년 50억원, 96년 6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디자인·포장기술지도사업, 각종 홍보·판촉사업, 산·학연계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포장상품선정제도는 통산부장관이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서 당해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및 품질 등을 기준으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그 포장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선정된 상품을 우수포장상품으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로는 포장기술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포장기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을 활성화 할 것이다. 교육부와 협조하여 (전문)대학에 포장관련 학과 설치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노동부 및 대한상의 산하 직업훈련원에 포장과정을 설치토록 유도할 것이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포장관리사' 교육의 내실화(포장기술과 포장디자인의 접목유도, 포장실험실의 활성화 및 포장시험기계의 확충, 포장기술국제전문가의 초청을 통한 세미나 확대 실시 등)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로는 포장산업의 중요성인식 확산 및 진흥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국제포장기자재전 등 각종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의 포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포장상품 전시회의 참가를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진흥체제의 확충을 위해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각 단체·협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금년부터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업부문과 연계하여 상품화를 지원하고, 지역연고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지방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물론 금년에는 디자인분야를 포함하여 60여개정도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장분야의 경우 포장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숫자가 적어 원활한 산·학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포장관련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강원대 제지공학과, 동국전문대

포장학과, 신성전문대 산업포장과 등 3개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학의 포장관련 학과의 신설이 확대되어 원활한 산·학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포장분야 각 기능간 평준화된 발전이 안돼 있어 산·학연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포장디자인의 경우 일반제조업체의 수요도 많고 이를 수행할 대학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활발한 산·학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포장기술이나 포장재료 분야의 산·학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포장진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양성 등 기반확충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장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산이나 국제적 협력업무도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도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포장분야의 각 단체와 조합이 주축이 되어 포장업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체상호간 정보의 교환 및 기술교류는 물론 공동구매 및 수출 공동수주 등 공조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포장업계 공동의 협동단지 조성 및 교육연수·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공동이익실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